조계종,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사격'

총무원장 진우 스님 불교국가에 친서 발송

7개국 8개 종파 협조 요청
"불도 부산, 법향 나눌 기회"
박형준 부산시장 예방서 강조
부산불교계, 삼보일배로 정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3일 박형준 부산시장의 예방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돕기 위한 불교계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이 6월 11일 송상현광장과 시청 일원에서 봉행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삼보일배 대정진법회.

'부산이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함께 이뤄갑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과 정부기관, 각종 기업들이 나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조계종이 종교계를 대표해 간접지원을 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조계종에 따르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최근 불교국가 7개국 8개 대표종파와 단체에 부산엑스포 유치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발송했다. 친서는 베트남승가회 총무원장인 틱티엔 논 스님을 비롯해 네팔불교연합회장, 캄보디아 마하니까야종 승왕, 라오스중앙불교회장 권한대행, 몽골불교중앙센터 간단사 주지, 태국최고승가위원회 최고승가위원, 스리랑카 시암파 종정 스님 앞으로 보내졌다.

진우 스님은 친서에서 조계종이 한국불교 1700년 역사를 계승하면서 현직 총무원장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으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한편, 이웃 종교가 함께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아시아 물류의 중심지로서 소통과 교류의 도시이자 많은 불상과 경전이 전해진 고대 불교 교류의 중심 항구라고 소개했다.

진우 스님은 "부산은 범어사와 통도사 등 조계종단 주축 역할을 하는 사찰들이 자리한 불교 도시"라며 "신심 있는 많은 불자들이 활동해 한국에서는 부산을 '불도(佛都) 부산'이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부산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면 수많은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불교와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 여러 국가의 불교지도자들이 함께 교류하고 법의 향기를 나누는 귀중한 협력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끝으로 세계 불교도들이 한국불교와 유대를 위해 힘써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해당 국가와 종단에 방문해 부처님 법을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진우 스님의 친서 발송은 우리나라와 엑스포 유치 경쟁을 벌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종교적으로 같은 문화권인 이슬람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데서 시작됐다. 스님은 지난 3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뜻을 언급했다.

진우 스님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이슬람국가들의 지지를 받는다"며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외교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접촉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준 시장은 "부산엑스포는 1960년대 1인당 GDP 100불인 나라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부산과 남부권을 또 하나의 축으로 만드는 국익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엑스포가 월드컵 경제효과의 3~4배에 달한다고 알고 있다. 1857년 런던박람회에서 비행기와 전화기, TV 등이 공개된 것처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매일 아침에 하는 108배에 (엑스포 유치를) 하나의 원력으로 더해 발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지난달 조계종 총무원을 찾은 스리랑카 라만야파 종정 마쿨레 위말라 마하 나야카 스님에게도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 써달라고 부탁했다. 나카야 스님은 흔쾌히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나 조계종과 한국의 뜻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엑스포 개최지로서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는 부산에서도 불교계의 유치 기원이 이어졌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이 6월 11일 송상현광장과 시청 일원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삼보일배 대정진법회'를 봉행한 것. 행사에는 150여 명의 사부대중이 목탁 소리에 맞춰 절을 하고 걸음을 이어갔다. 부산불교교육대학뿐만 아니라 총동창회, 화엄승가회,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사부대중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해 자비로운 세상, 풍요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살기 좋은 부산, 불국정토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 지극 정성으로 발원한다"며 "앞으로 우리들은 불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한 무해행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잘 모셔지길"

조계종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정성 답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 첫 주부터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입불을 염원하는 정성이 잇달아 조계종에 전해졌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7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쓰일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보운 스님은 "열암곡이 범어사에서 멀지 않다. 종단이 추진하는 큰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범어사 대중이 뜻을 모았다"며 "사업이 무르익을수록 부산과 경남불자들이 원만성취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인사했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열암곡 부처님을 잘 모시기 위해 다각도로 입불 방법을 컨설팅하고 있다"며 "부산신도들도 열암곡 부처님을 반갑게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스님은 이어 1938년 조계사(당시 태고사) 대웅전 건립불사에 동참한 범어사의 정성어린 후원을 되새겼다. 스님은 "당시 시주질을 보면 통도사에 이어 범어사가 두 번째로 많은 기금을 희사했다"며 "범어사가 앞으로도 부산불교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운 스님은 "범어사가 과거에 해왔던 역할을 보면 최근 한동안은 소강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다"며 "사내 대중스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다. 종단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 소속 비구니 스님들도 '천년을 세우다'에 힘을 보탰다. 회장 법인 스님(대원사 주지)을 비롯해 지영 · 원타 · 무원 스님 등 봉선사 말사 비구니회 스님들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2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 사찰이 대부분 크지 않고 신도가 많지 않을 텐데 종단사업에 힘을 보태주셔서 두 배, 세 배 감사하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가람수호를 잘하기 때문에 봉선사가 더 빛나고 불법홍포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감사를 전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사진 오른쪽)은 7월 3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불사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조계종 정무특보 보관 스님이 배석했다.

부산 혜원정사 주지 효명 스님 역시 같은 날 1000만원을 기탁하며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소임을 맡아 매년 1500명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하며 불심을 일구고 있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말사로서 종단 불사에 동참하기 쉽지 않은데 기금을 희사해줘 고맙다"며 "앞으로도 부산불교를 잘 이끌어 더 많은 불자들을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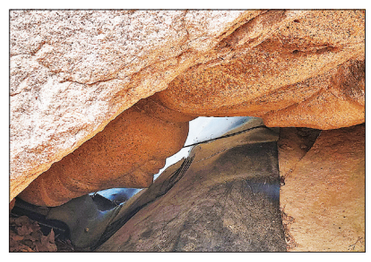
매월 한 차례 '다라니 기도' 봉행

첫째 주 토요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법사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사진>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계종 핵심사업 '천년을 세우다' 천일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8월부터 '다라니 108독 기도'가 더해진다.

첫 다라니 108독 기도는 8월 5일 시작한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삼귀의 △반야심경 △법문 △다라니 108독 △정근 △축원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다라니 기도 첫 참여 교구본사는 제10교구 은해사로, 주지 덕조 스님이 법사로 참여한다. 이후 9월 2일, 10월 7일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전국 교구본사 신청을 받아 기도를 이어간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는 지난 4월 28일 입재해 1차 100일 회향이 8월 4일이다. 다라니 기도는 천일기도 100일 회향을 계기로 기획됐으며, 1차 회향 다음날인 8월 5일부터 천일기도 회향 때까지 매월 계속된다.



이를 주관하는 조계종 미래본부는 천일기도 1차 100일 회향을 앞두고 2차 100일 기도를 접수한다. 2차 100일 기도는 8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며 기도비는 10만원, 기도 접수는 전국사찰 종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미래본부는 "올해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순례의 해로,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의 순례 동참을 요청한다"며 "기도와 순례안내 등 경주시 인근에 거주하는 신심 있는 봉사자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감사합니다

18th SAKYADHITA SEOUL 2023 샤카디타 세계대회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가자 모든 분의 응원과 격려로 전 세계에서 모인 부처님의 딸들
(샤카디타)이 지난 5일간의 본대회와 3일간의 사찰순례 기간 동안,
화합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유례없는 대회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모든 분들의 노고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위대한 대장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으로 더욱
발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샤카디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두손모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대회장 본각 합장

